

부적을 통해서 본 부엌의 신 조왕님

-가마무늬 부적과 馬轆의 蘇塗를 中心으로-

金 玟 基

국립민속박물관

(1986년 9월 20일 접수)

Studies on the Kitchen God of "Cho-Wang" and the Charms in Korea

Min-Ki Kim

The Curator of the Varkto Folk Museum

(Received September 20, 1986)

Abstract

Korean peoples have been the god of "Cho-Wang" and believed the god that control the food in the kitchen and well-being of home.

There were many charms related to the kitchen. The striation of "Kama" was especially peculiar in the charms. The word of "Kama" means hair striation of head and also means cooking kettle.

Other charms related to food were also reviewed.

I. 서 론

한국 식문화의 産室이었던 부엌은 전래 한
옥의 급속한 소멸로 양육화 되면서, 시류에
따라 한옥의 전통속에 살고 있던 식문화의
神靈들도 행방을 찾을 길이 없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양육의 세대들은 그리스 신화
의 신령들인 나르시소스 까지도 알면서 정작
자기 나라의 '부엌의 신'을 물어 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따라서 각종 부적과 자료
를 통하여 부엌신과 식문화를 살펴보았다.

II. 조왕님의 정체

국어사전을 찾아 보면 조왕님은 ① 부엌을
맡은 신, 부엌에서 모든 길흉을 판단한다 함
② 음식의 일을 주재 한다고 써 있다.
옛날의 전통적인 부엌에는 뒷벽 윗쪽에 조
왕단(龍王壇)이 있었고 이곳에 조왕님이 쉬
고 있다 믿어 이웃집에서 음식이 들어 오면
먼저 조왕님이 드시도록 올려 놓은 다음에
할아버님과 아버지, 그리고 식구들에게 長幼
有序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 고사를 지낼 때

에는 家神을 봉안하는 8군데에 따라 따라 음식을 차려 놓는데 ① 첫째는 큰방의 제석(帝釋)님과 조상신이 계시는 제석단지 앞이요 ② 둘째번은 가장의 수호신이 계시는 대청 서까래 그밀에 성주(城主·城造)상이 놓이고男神이며 ③ 셋째는 뒷뜰대감님으로 財福增益담당 신이며 ④ 넷째는 주부의 수호신이 거처하는 마당으로 여성 地神이며 ⑤ 다섯째는 부엌으로 위에 조왕님과 바닥에 터주대감(하인의 수호신)이 있으며 ⑥ 여섯째 대청 처마밑 입구에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도리위 한구석에 조그만 널판자로 선반을 달아 매고 그곳에 위하였던 건립(乞粒)신 ⑦ 일곱째 대문 입구에 있는 수문장님과 ⑧ 여덟째

화장실에 있는 뒷간 부출(踏板) 각씨귀신이 모두이다.”(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이 중에서 음식과 불을 관리하는 조왕신은 산해경 해외남경에 ‘축룡이 조왕신으로 불을 담당한 신(祝融爲 龍神 火神也)이라는 기록이 있고 머리에 뿔이 달린 두 것발든 귀신을 거느린 女神이며 쌍룡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그림 1 처럼 그려있다. 여기서 ‘축룡’은 五祀의 남쪽신이며 불을 담당하는 신인데 오행사상과 비교하면 표 1 과 같다.

중국의 古制에서는 궁중에서 七祀(司命, 戶, 龍, 門, 厲, 行, 中)의 하나로 올리는 祭祀이며 음력 12월 23일에 조왕신이 일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上帝에게 고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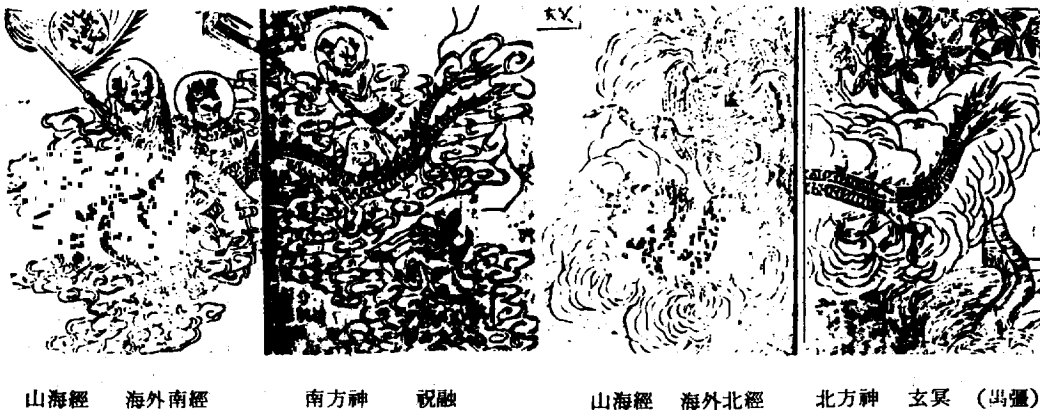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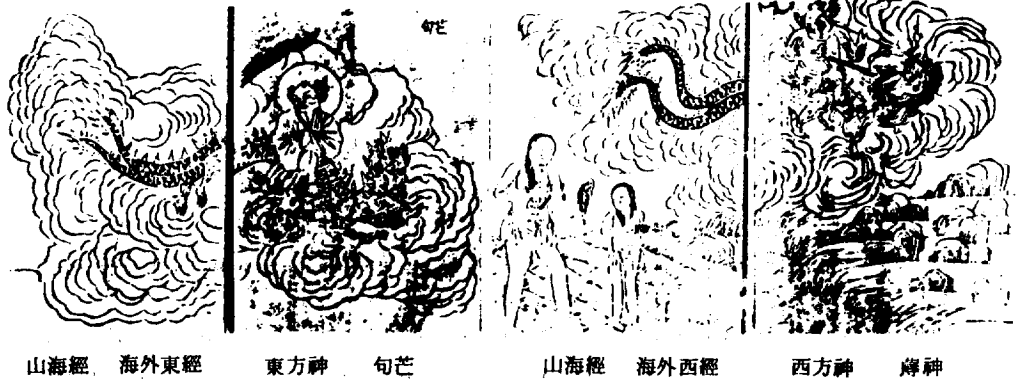


그림 1 조왕신의 형태

1 ; 朝鮮巫俗の研究, 上卷 p 193-201, 下卷 p 150-161.

表 1 五祀와 五行³⁾

出典：山海經

순	五方	五行	계절	神	五祀	모 습	역 할
1	東	木	봄	句芒	人面鳥身	수명을 담당	
2	西	金	가을	蓐收	人面虎身	형벌을 담당	
3	中央	土		后土		토지를 관리	
4	南	火	여름	祝融	人面獸身	불관리, 음식담당	
5	北	水	겨울	玄冥	人面鳥身	물관리, 河伯太陰神	

해 上天하기 때문에 잘못을 빌고 치성을 드려 복내림을 기원 한다고 한다.²⁾

조왕신을 비롯하여 百神에게 음력 12월 납일에 올리는 제사는 동지후 제3술일에 실시 하다가 조선 태조때 부터는 미(未)일로 고쳤고 이 王侯顯의에 天臘(정월초하루) 地臘(五월五日) 道德臘(七月七日) 民歲臘(十月초하루)등 五臘日이 있었다. 또 세모에는 역귀를 몰아내는 의식에서 나자(難者; 설달그믐날밤 마귀와 邪神을 쫓는 방상씨, 초라니, 倭子 持軍 小梅등)의 하나로 靑袍를 입고 幘頭와 탈을 쓰고 木笏을 쥔다고 한다.⁴⁾

III. 부적속의 조왕님

家宅經으로 전해지는 ‘불설환희조왕경(佛說歡喜庭王經)’에는 ‘夫婦子孫和合長壽符’와 ‘鬼神不侵符’가 나와 있는데 이를 지니고 정성으로 이 경문을 의우면 소원성취 한다고 하며 부적과 경문은 그림 2와 같다.⁵⁾

(1) 부부자손화합 장수부

음식은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며 나이가 성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먹을 것이 풍족해서 모든 면에 여유가 있고 가족의 화합도 잘 된다면 어찌 복이 아니겠는가. 불설조왕경에는 조왕님께 치성을 다하면 집안이 두루 안녕하고 안팎으로 吉昌하며 金銀玉帛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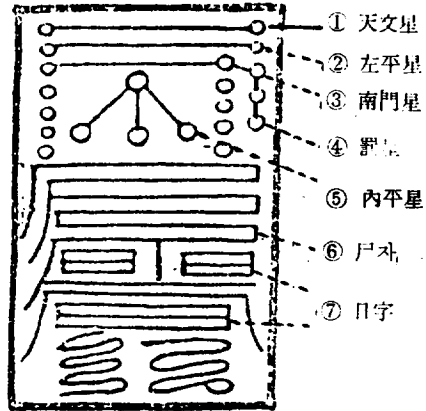


그림 2 夫婦子孫和合長壽符(佛說歡喜庭王經에서)

늘어 집안에 가득하고 바가지 복이 고루 갖추어지며 부부와 가족이 장수한다. 또 곡식 농사와 양잠도 몇배로 잘되며 모든 神들이 집안을 보호 해준다 하였다.

이 부적(그림 2)의 윗부분 별자리는 위에서 부터 ① 天門星(하늘의 문; 朝聘待客之所 明則四方귀화) ② 左平星(廷尉之象 天下之法獄) ③ 南門二星(天之外門 主守兵 明則遠方貢)으로 天文志 (그림 3)에 기록되어 있으며 ④ 罰星(直立하면 법령이 大平)은 그림 4와 5의 천문지와 고려의 암기와 적혀진 秘方에서도 나타나며 ⑤의 內平星(平罪之官 明則刑罰)이 위 중앙에 자리잡고 있어 그 의도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 즉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사방에서 조빙(朝聘)객이 찾아오고 또 호위해 지켜주며 해치려는 자를 벌주며 법이 잘 집행되어 그 위덕이 밝게 사방에 알려지길 기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⁶⁾ 아랫쪽의 古篆字는 三戶(민속에서는 사람몸에 無形의 별레 3마리 정령이 깃들이고 있어 이것이 그 사람의 과실을 알아 庚申날 밤에 사람이 잘때 뱃속에서 나

2 ; 消災吉祥佛經寶鑑

3 ; 山海經(晉記室參軍郭 傳, 吳志伊 註, 清刻本板本) 海外東·西·南·北經.

4 ; 국어대사전(이희승편, 민중서관) p 259L

5 ; 消災吉祥佛經寶鑑 p 120.

6 ; 論天文, 絕跡去而爲

佛說歡喜龜王經

稽首莊嚴龜王神 十方照耀大光明
 계수장엄조왕신 집방조요대광명
 天上仕官龜王神 閻家人僉總安寧
 천상사관조왕신 합가인용총안녕
 常逢吉慶龜王神 惡鬼事善退散亂
 상봉길경조왕신 악귀사선퇴산란
 離障安住龜王神 夫婦家人增福壽
 이장안주조왕신 부부가인증복수
 曾時守護龜王神 百殺勝出獲豐怡
 중시수호조왕신 백살승출양팔배

佛說歡喜龜王經
 불설환희조왕경

불설환희조왕경

威光自在龜王神 土地龍神皆歡喜
 위광자재조왕신 토지용산개환희
 内外吉昌龜王神 金銀玉帛滿堂進
 내외길창조왕신 금은옥패만당진
 志望周成龜王神 億喜萬福具足在
 지망주성조왕신 억선만복구족재
 災殃永滅龜王神 百病消滅大吉祥
 재앙영멸조왕신 백병소멸대길상
 救護宅舍龜王神 一切諸神皆歡喜
 구호택사조왕신 일체제신개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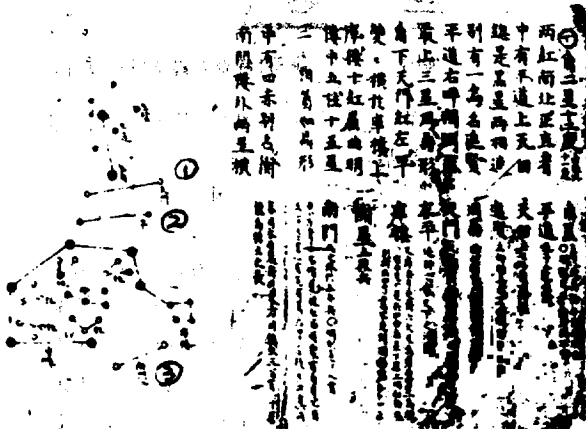


그림 3 天文志의 角二星十二度の 별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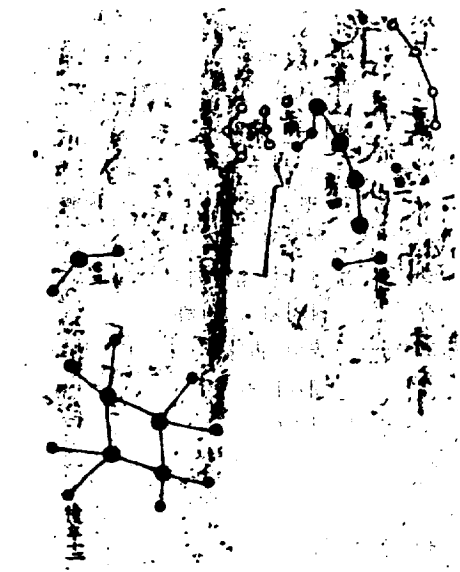


그림 4 天文志의 罰星



그림 5 罰星무늬 암기와*

*강원도 설악선 권금성터 출토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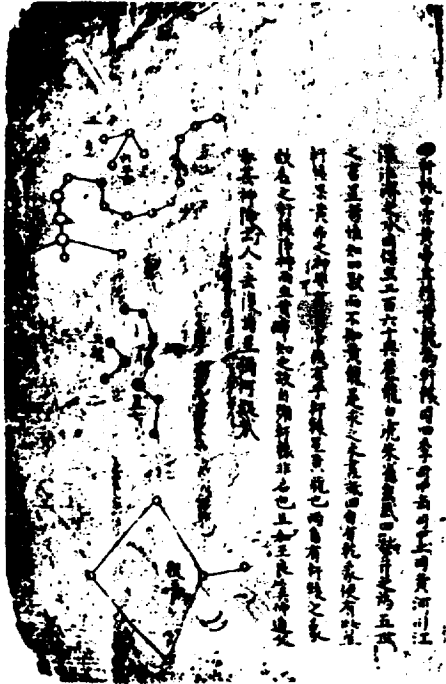


그림 6 天文志의 內平星

天官書卷之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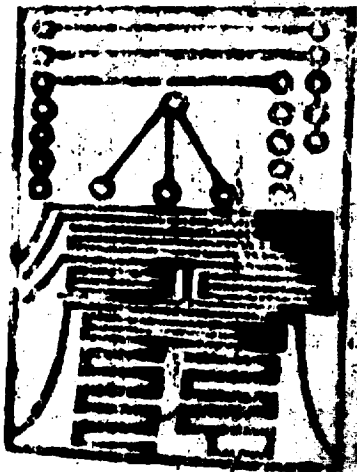


그림 7 1978년 서울에서 수집된 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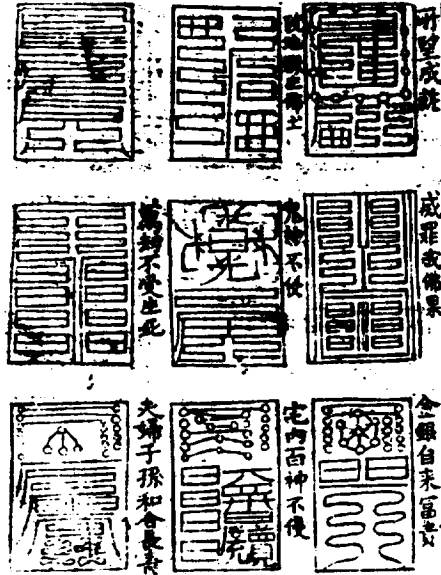


그림 8 조선조 佛經 眞言集속에 있는 夫婦子孫和合長壽符(左下)

와 하늘로 올라가 하느님께 고한다고 함) 7字와 日字 3개(작은해 즉 불을 담당한 조왕신)로 '부부자손화합'과 '수명장수'를 하수에 부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귀신 불침부

조왕경에 나오는 이 '귀신불침부'는 그림 8의 중앙에서도 보이고 수원 용주사 탑 속에서 나온 그림 9의 고려시대(1268년) 부적 속에서도 보여 쓰여진 역사의 오래됨을 증명한다 하겠는데 그림 9에서 光字(①) 4개가 日字(②) 사방에 배치되어 불(日)의 힘이 사방의 邪鬼를 물리치는 의도가 보이고 火德의 위광(十方照耀大光明)을 빌려 아랫쪽의 古篆體로 쓰여진 戶鬼(귀신 우두머리; 치방위의 대장도깨비 막새기와는 압귀를 쫓는 주술적 의도)로 잡귀를 위압하게 하려는 부적이다. 여기서 火德이 조왕신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인류의 조상들이 음식을 불에 익혀 먹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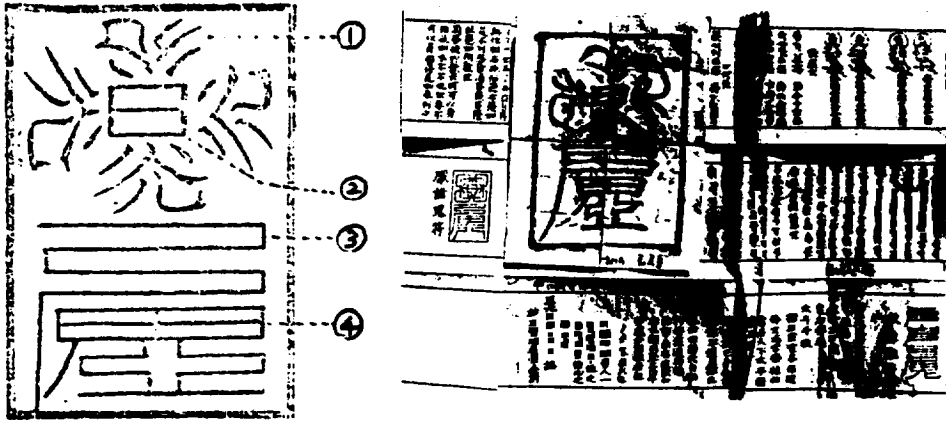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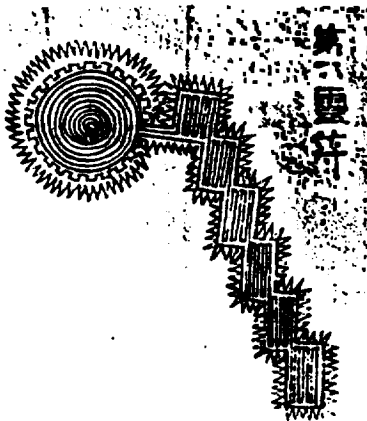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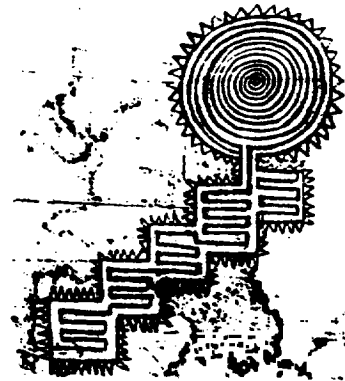


그림 9 환희조왕경숙의 귀신 불침부*



①東學靈符 ‘朝鮮의類似宗教’ 附高麗 p 29.



②靈符 필자수집품 古書속에서 나온.

그림 10. 靈符

(3) 가마무늬 부적

되면서 부터 오랫동안 시달려 왔던 크고 작은 질병에서 해방된 경험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불에 구워 먹을 경우보다 ‘가마솥’에 끓이거나 삶아 익혀 먹으면서 부터 획기적인 진감한 모습을 발견 했을 것이며 불에 의한 열의 살균작용을 경험 법칙으로 생활화 했을 것이라 생각 된다. 또 이를 통해 획기적인 수명 연장을 이룩 ‘가마솥’을 신성시하는 신앙으로 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10과 그림 11에서 공통적인 점은 ‘소용돌이 무늬’라는 점이다. 소용돌이 무늬는 사람의 머리에서 그림 12처럼 ‘가마’라고 불리우며 이 무늬가 있는 정(頂)수리는 갓난아이가 숨릴때 마다 팔딱거리는 것을 볼수 있고 靈界와의 交互作用도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전해지며 ‘석가여래인과경 坐菩提座’⁸⁾에 정수리인 腦天에서 靈界와 교류되

*수원 용주사. 至元五年(AD 1268)에 고려의 晉城君이 탑에 넣은 기록이 보인다. 가운데줄 왼쪽에 壓踏鬼符 즉 ‘귀신불침부’가 보이고 그옆에 있는 것은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필자에 의해 수집된 것임.

8 ; 釋迦世尊因果普濟經 卷一. 圖四十三. (成宗 17年, AD 1486).



그림 11 官災不入符



그림 12 사람 정수리 가마무늬

는 靈波의 그림이 있어 이를 뚜렷이 입증하고 있다. (그림 13)

이 가마무늬가 있는 곳을 '가마터' 즉 '술터'라고 바꾸어 부르고 한자로 音寫하면 蘇塗가 된다.



그림 13 보리자의 석가

蘇塗는 '삼국지·위지·마한전'에 天君이 사는 성역(부적에서 靈府)의 별음을 지칭한다 하였고 이곳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서 종교적 의식에 사용했다고 한다(又諸國各別邑名之蘇塗立大木縣鈴鼓事鬼神諸亡逃至其中皆不遷之好作賊). 마치 오늘날의 무당이 굿을 하는 것과 같은데 이곳으로 죄인이 도망치면 잡아가지 못하는 신성한 지역이라 쓰고 있다.

부적 靈符圖는 사람 머리의 가마터 즉 靈府와 같고 술터(蘇塗)이며 이 蘇塗에 들어온 사람이면 비록 罪人이라 하여도 官에서 잡아가지 못한다 하였으니 '官災消滅符'는 가마무늬가 官字를 꼼짝 못하게 그림 11 처럼 짜고 있어 그 재앙을 막아 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 있고 (최근에는 교통경찰의 감시를 받는 운전사가 많이 쓰고 있다) 그림 14에서는 불교가 토착화되면서 天君의 보호대신 석가세존의 보호로 대치된 모습이며 그림 15의 아랫쪽 가운데 '當生淨土符'에서도 '가마무늬'가 같은 용도로 쓰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마무늬가 쓰인 또



그림 14 호신부속의 관재소멸부上帝의 역할이 식가세존으로 바뀐 불교화된 부적.
(主佛의 光背는 三圓同心圓, 左右 協侍佛은 三圓同心圓이다)



그림 16 萬事大吉符



그림 15 當生淨土符(조선조 佛經 眞言集에서)

다른 예는 그림 16의 萬事大吉符와 그림 17~21까지의 여러 예들에서 '환희 조왕경'에서 보이는 조왕님의 역할과 다름이 없음을 거듭 확실하게 해준다.

술터 靈符에 세워지는 '숯대·술대·수릿대'등으로 불리는 竿木의 '숯·술'은 가마



그림 17 能避淨訟 官災消滅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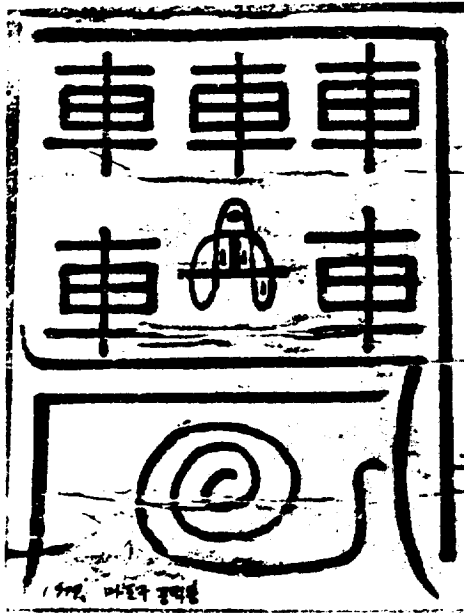


그림 18 교통사고 예방부



그림 20 邪鬼退散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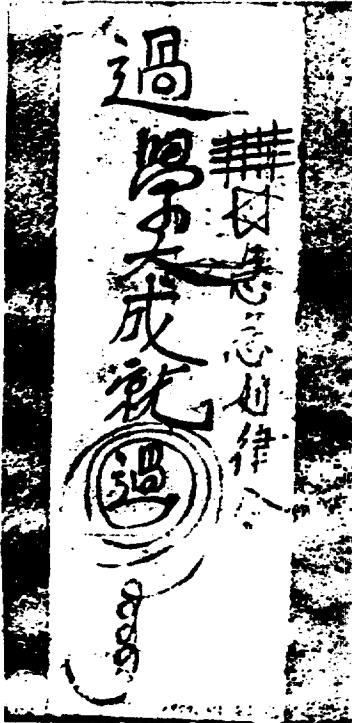


그림 19 합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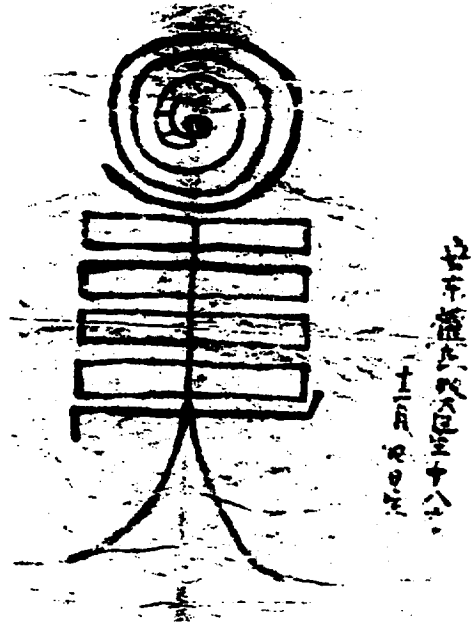


그림 21 災殃消滅符(가마무늬중심에 明字가 있다)

속에서 물이 끓어 오를때의 용출하는 뜻이며 '수리'는 정수리의 가마누늱이 있는 곳에 세우는 대를 지칭함이고 단오절을 俗에서 '수리날'이라 부르는 것은 蘇塗祭의 神日이 일년중 가장 음기와 양기가 성한날로 정수리에 비유 풍년을 좌우하는 분기점으로 삼은 것이라 생각 된다. 사람의 정수리가 靈界와 交通하는 신성한 곳인것 처럼 솔터가 되는 성역에 솟대를 세우고 天界와의 심부름을 위

해 수리를 만들어 올려 놓은 것은 새가 하늘을 날아 天界의 上帝에게 뜻을 전달해 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며 흉년과 풍년 질병과 재앙등은 인간들의 소행에 대한 하늘의 응답으로 보고 해마다 祭天 행사를 지성으로 거행했던 것이요 그림 22 는 그러한 풍속의 유습으로 보인다. 그림 23 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쌍조간두식'으로 지팡이나 手竿에 꽂았던 장식¹⁰⁾이며 祭祀長(무당)의 儀



그림 22 목장승 솟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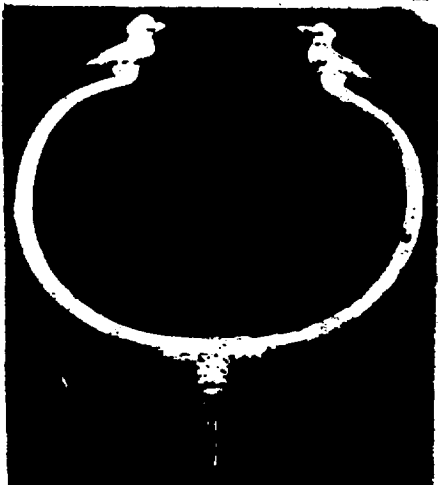


그림 23 雙鳥竿頭飾(청동기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具에 쓰였던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새가 하늘, 들짐승이 땅, 물고기가 바다'에 살듯 일반 백성을 물고기로, 임금과 지배자를 새로, 중간층을 짐승으로 비유하는 우리 고대 문화의 특성으로 볼때 삼국시대 이전의 雙羽式 모자¹¹⁾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겠다. 풍수지리설에서는 사람 머리의 가마터에 해당되는 地形을 솔을 엮어는 형상으로 覆釜라 지칭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形如覆釜 其嶺可富(天機會元卷三 葬經)
- 覆(釜)者 富貴之祖 墳必得 山川之正氣(天機會元卷一 雪心賦)

9 ; 民俗寫眞特別展圖錄(石南民俗遺稿) 韓國民俗博物館 1975. 良書文化社 發行, 圖 1, 2.
 10 ; 韓國美術全集 I, 原始美術, (同和出版社) 金元龍 p 150.
 11 ; 美術學報 1. (韓國美術研究學會 1985. 12.), p 27.

집터나 무덤터에서 천연적으로 솥을 엮어 놓은 모양의 곳은 명당터인데 이런 곳은 산천의 음양 기운이 응축된 곳으로 자손들이 부귀를 누릴 수 있다고 했으며 실제로 청동기 시대의 무덤인 고인돌이 대부분 산이 병풍처럼 둘러지고 그안의 평평한 분지에 약간 솟아 오른 覆釜의 땅에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비유법으로 말하면 이곳은 솥속에서 음식이 끓어 용출되는 곳이며 장마철의 집중 폭우나 홍수의 피해에서도 끄떡없는 곳이다.

가마터는 覆釜形의 出된 '솥은터' 일뿐 아니라 사람의 '정수리'에 해당되는 神聖高位 首位의 뜻으로도 우리의 토박이 문화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를 우리나라 地名에서 살펴보면 명백히 증명할 수 있다.

- ① 高陽의 所叱連山(솥달산)
- ② 公州(利仁面)의 鼎峙(솥터)
- ③ 扶餘 및 高山의 炭峴(솥고개)

이상은 그러한 地名으로 볼수 있고 사람 머리의 '머리솥'에서 솥이 솥(炭)의 의미를 갖는 것도 명백하고 (함경도에서는 솥을 솥터라 함) '머리솥·가마·정수리'의 몸말(人體名)이 그대로 통하고 있음이 입증 된다. 이러한 우리의 고대문화가 人體를 經典으로 하는 三才(天地人)는 하나의 이치로 통한다. 즉 '人體는 萬物의 尺度'라는 원칙에 어긋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4) 쌍가마무늬 지천 조왕부

가마는 서로 상주인 물과 불을 서로 관계하게 하여 만남이 있게 해주는 神器인데 솥 밑의 불로 인해 솥속의 물이 끓어 오를때 '소용돌이무늬'는 불의 힘이 강할 수록 크고 많이 생긴다. 이때 불과 물 즉 天氣와 地氣와 합작인 '가마무늬'를 양극화 시킨것이 '쌍가마 무늬'로 보이고 이는 음양의 상징으로 나타나는데 12) 그림 25의 단주(丹朱=辰砂, 硃砂)명령 지천 조왕부는 이유없이 부부화합을 하라는 명령이 담긴 부적이고 그림 26의 신



그림 24 玉釜形. 무덤자리(조선 풍수서, 필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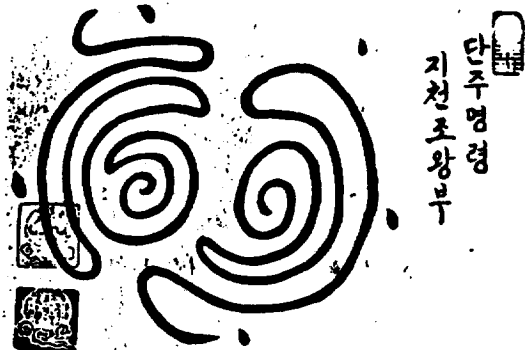


그림 25 지천 조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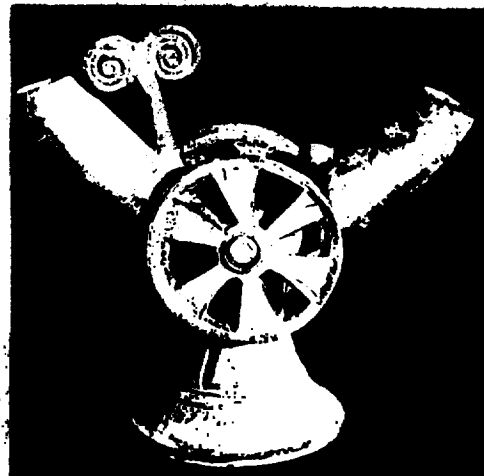


그림 26 쌍가마무늬가 불은 신라토기

12 : 符籙紋樣을 中心으로 考察한 韓國의 家具손잡이(1977.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金基) p 9-11.

라토기는 왼쪽 위에 쌍가마무늬 장식이 붙어 있어(오른쪽에도 붙어 있었던 흔적이 보임) 饜器였을 이 토기가 음양의 화합으로 자손이 번창하고 풍년등을 기원하는데 쓰였을 것임을 알수 있다. 그 증거로는 그림 27의 화합부에 쌍가마무늬가 확실하게 그려있고 조선조 佛經 眞言集에는 그림 28처럼 精靈의 모습이 쌍가마를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양다리 모양으로 자를 그리고 있는 것은 약사여래의 약사자 두경에는 반드시 이 무늬가 그려있고 病魔를 쫓는 역할이며 아랫쪽 중앙의 자식을 비는 敎產符도 함께있어 쌍가마무늬가 和合의 상징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림 27 화합부(조선말기의 쌍가마무늬 부적)

(5) 가마무늬와 가마(鼎·釜)

가마무늬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시베리아 諸民族의 민족에서도 靈(魂)을 상징¹³⁾ 하는데 사람 정수리의 가마무늬가 있는 솔터(蘇塗) 즉 圓丘(圓壇)가 왜 그토록 신성시 되었을까 구체적인 해석이 곁들여 있는 周易의 가마술에 대한 풀이를 보기도 한다.



그림 28 和合符의 3종(眞言集에서)

술을 상징하는 패는 ‘火風鼎’ 즉 巽下離上인데 ‘크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나무로 불을 때서 삶고 익힌다. 聖人(天子)은 삶고 익힌 祭物로 하늘의 上帝를 제사하고 또 크게 饗應하여 천하의 어진 사람들을 기른다. 겸손한 태도로 남의 말과 의견을 존중하니 귀와 눈이 총명 하여진다. 유희한 德을 가진이가 위에서 帝王의 지위에 있어 훌륭한 신하들과 뜻이 서로 호응한다. 이러 하므로 나라가 크게 발전 하는 것이다.

鼎패는 상패를 離, 하패를 巽으로 하여 설했던 바 離패는 불을 상징하며 巽은 나무를 의미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나무로 불을 때다고 설명한 것이다. 또 巽패는 쫓는다. 겸손하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帝王이 겸손한 태도로 남의 말과 의견을 존중한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周易의 관습에서 帝王의 위치로 보고 있는 제 5 효가 柔효로서 柔和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패 제 2 효는 陽효 즉 剛효여서 제 5 효와 제 2 효는 음양 상응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유희한 덕을 가진이가

13 ; シベリアの古代文化 (アレクセイオクラードニユフ著 講談社 1974).

帝王의 지위에 있어서 훌륭한 신하들과 호응한다고 풀이한 것이다.

또 이卦를 다른 각도로 풀이하면 上卦는 불인데 불은 光明이니 천명을 뜻하고 下卦 巽은 바람으로 쫓는 습성이 있으니 종순과 겸손을 의미한다. 웃사람의 천명에 아랫사람의 겸손이 서로 호응 협력하는 상태를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호응하고 협력하는 상태를 鼎으로 표현한 것은 현명한 착상이다.

古代에 있어서 鼎은 天子의 지위와 국가의 위신을 상징하는 신성시되는 그릇이었다. 그러기에 王位를 鼎祚라 하고 國運을 鼎運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국가 위신의 정도를 논평하는 것을 「鼎의 輕重을 묻는다」고 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고대 제정일치의 시대에 있어서 나라의 가장 크고 소중한 행사는 신과 조상에 대한 나라의 큰 제사인 것이다. 이 제사에 으뜸가는 제물을 바칠 희생을 이 술에서 삶는 것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신의 가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제물이 정결하고 알맞게 익혀져야 하는데 그 중대한 임무를 가진 것이 술인 것이다. 또 帝王은 이 술에서 만든 음식으로 천하의 어린이들을 향유한다. 천하의 유능한 인재를 부르고 그들의 충지를 모음으로써 국정의 바른 수

행을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다.

또 술은 안정과 협력을 상징한다. 3개의 발은 안정을 상징하며 또 협력을 상징한다고 하였다.¹⁴⁾

周易은 東夷의 歸藏易을 본받아 만든 것이라 전하므로 술터(蘇塗)를 신성시하는 의미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가마속의 제사 음식이 끊어 오르는 소용돌이무늬나 고사리손이 자라 오를때 둥글게 말아 오르는 것이나 사람 머리의 가마무늬나 이러한 자연현상 속에서 가장 生氣가 넘치는 靈의 상징으로 무늬화 '가마무늬부작'이 되었으리라 보여 지는데 우리나라 祭祀에서 향불위에 술잔을 3번 돌려 가마무늬를 그리는 풍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으며 이퇴계의 聖學十圖에서는 가마무늬를 정형화시킨 三圓同心圓이 分陰分陽하여 음양오행과 64괘가 생기는데 경북 천전리의 화랑서석대나 고려 말터 암각화 그림 29에서 중앙 윗쪽에 중심무늬로 새겨있어 선사문화에서 그 중요성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 이 무늬는 삼국시대의 와당 그림 30에서 최근의 기와 그림 31에 까지 계승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무늬가 손금에 있을 때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王侯將相이 된다고 중국의 대



그림 29 고려 말터암각화의 중심원

14 ; 周易, 玄岩社 南曉星譯 1973. p 232-234.



그림 30 백제의 와당



그림 31 왜정시대 와당

표적 관상서의 하나인 '麻衣相法'에 기록하고 있고 이를 寶量紋이라 지칭 하였다. 寶量紋은 量族이 보배처럼 이는 무너라는 뜻인데 '훈'족은 周代 이전에는 東夷族인 貳夷를 지칭하며 나중에는 흉노족을 뜻한다.

그림 32는 청동기시대의 마구에 달았던 소용돌이 가마무늬장식으로 주술적의미가 담긴 것이고 그림 33은 多動細紋鏡의 가마무늬로 전체가 동심원으로 되어 있고 세부는 원양문 즉 X자 무늬로 채워져 있는데 '마의상법'에는 이 손금무늬가 많은 사람은 음탕하다 하였으므로 쌍가마무늬(和合符)가 사방에 그려 있는것과 함께 해석하면 '음양의 화합'을 강하게 표시하는 巫具가 된다. 이 청동경은 무당이 '명도아지'라 부르며 靈界의 뜻을 헤아리는 神具로서 古代에서 부터 사용되어 왔

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림 34는 불교화된 금고의 동심원이요, 그림 35는 다라니경문을 동심원속에 가마무늬로 배열한 최근에 쓰이고 있는 부적이며 그림 36은 조선시대의 솟기외에 찍혀진 주술적인 의미를 강하게 담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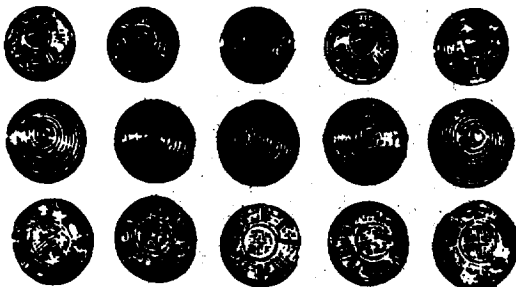


그림 32 청동기시대 장신구



그림 33 青銅器의 가마무늬 (청동기시대 다뉴세문경)



그림 34 고려 資福寺金鼓



그림 35 숫기와의 가마무늬 조선(己巳年銘)

IV. 부엌의 민속과 식문화

한 나라의 神器인 '가마솥' 이던, 한 가정의 '밥솥' 이던 솥이 소중한게 다루어진 것은 다름 바가 없고 전통문화가 여기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주로 전승되어



그림 36 다라니 가마紋符

졌는데 이 솥과 부뚜막(竈上) 아궁이(竈門)에는 여러가지 禁忌 사항이 있어 청결과 정성을 절대적으로 요구 하고 있다. 솥을 대청소 하는데는 吉日(매달 음력 8, 13, 21, 28)에 한하고 초사흘을 비롯한 刮網忌日은 피해야 한다. (1월 ; 3, 8, 9, 12, 27. 2월 ; 3, 4, 7, 8, 9, 27. 3월 ; 3, 9, 19, 27. 4월 ; 3, 9, 27. 5월 ; 3, 9, 23. 6월 ; 3, 4, 9, 16, 19, 27. 7월 ; 3, 9, 27. 8월 ; 3, 8, 17, 25, 27. 9월 ; 3, 5, 18, 19, 25, 26, 27. 10월 ; 3, 9, 13, 26, 27. 11월 ; 3, 9, 15, 17, 27. 12월 ; 3, 15, 18, 24, 27) 또 '불설 조왕경'을 중심으로 본 금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불을 밝은 발을 부뚜막에 올려 놓아서는 안된다
- ② 칼이나 도끼를 든채 부뚜막 청소를 해서는 안된다
- ③ 주걱으로 솥을 찌거나 무엇을 솥안에 던져 넣어도 안된다
- ④ 부뚜막에 더러운 손을 올려 놓으면 안된다
- ⑤ 아궁이 앞에서 알몸으로 목욕해서는 안된다.
- ⑥ 부뚜막에 앉으면 안된다
- ⑦ 부엌에서 욕을 하거나 저주 하거나 울어서도 안되며 노래를 불러도 안된다
- ⑧ 월경(天癸)중에 부뚜막에 다리를 올려 놓아서는 안된다
- ⑨ 아궁이에 더러운 빨감이나 벼락맞은 나

무를 넣어도 안되고 풍파림(태풍에 찢긴 나무)을 때면 자손의 앞날에 풍파가 많아진다.

⑩ 짐승뼈 닭털등을 아궁이에 넣으면 안된다 ⑪ 글씨가 있는 종이를 넣어도 안된다

⑫ 발에 밟힌 곡식을 솥에 넣으면 안된다

⑬ 이러한 금기 사항을 어기거나 조왕님을 업신 여기는 말을 하면 큰 재앙이 떨어진다 고 믿었는데 이러한 조군규식(龜君規式)¹⁵⁾

을 無知로 어겼을 때에는 조왕경을 읽으면서 용서를 빌고 매월 30일과 12월 23일 조왕님이 북두칠성에게 상주하기 전에 아궁이에 엿을 붙이는 비방으로 액을 면했다 한다.

또 매일 새벽 우물에서 길은 첫물은 용기 잔에 떠서 조왕님께 바치는데 이러한 민속은 음식을 만드는 주부의 마음가짐과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방편적으로 강조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렇게 치성을 드려 음식을 만드는 우리의 자랑스런 食文化 전통이 가난에 찌들은 미신 덩어리로 왜곡된 것은 국운이 쇠퇴하고 나라를 왜적들에게 빼앗기면서 파괴되고 훼손된 탓이라 보여진다.

고대에 행정권의 상징은 옥새(玉璽; 임금의 도장)요 제사권의 상징은 가마(鼎)이며中國의 天文誌에서 周鼎星의 밝고 어두워짐은 국운을 점치는 기준 이었던 점으로 보아 국운과 식문화의 흥망성쇠가 일치하는 것으로 옛부터 보아 왔던 것이 명백하다. 이 가마의 다리가 3개인 三足鼎은 향로로 변해 일반 서민의 祭器로 되는데 태양신을 三足鳥로 즉 '세발(三足)+가마(鼎)+귀(神)'로 부르는 것은 가마솥의 검은색을 火精(鳥火精生朱也), 즉 솥에서 불이 나오는 이치이며 불의 근원인 해와 연결시킨 발상이라 하겠다. 여기서 가마귀는 새가 '하늘의 사신'이라는 새 숭배 사상의 고대 문화 비유법으로 불때 온몸이 칠흙같이 검은 '불의 사신'이 되며 사람의 머리에서 '가마무늬'가 부적에서는 靈府의 符로 쓰이듯 가마귀는 靈府의 使者로 수

명을 전달하는 저승 사자로 상징화 된 것이라 생각 된다.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삼대독자 외아들을 조왕님에게 팔아 兒名을 '조왕쇠'로 지어 長壽를 조왕님께 떠맡기는 풍속이 있는데 이런 우리의 습속은 수명을 걸어가는 북두칠성이 조왕님의 부탁은 잘들어 주기 때문이라 한다.

가마귀 말고도 솥의 이름이 붙은 새는 '소쩍새'와 '노고지리'가 있는데 그해의 풍년을 예고 할때에는 솥쩍(음식이 가득차 솥이 적다는 소리)! 솥쩍!하고 울되 흉년을 예고 할때에는 솥탱(솥이 텅빈)! 솥탱!하고 울어 이 소리를 듣고 먹을 것을 비축했다. 구전 되는데 공기중의 수분 함량에 따라 이렇게 들릴 수 있다고 하니 경험에 의한 생활의 지혜라 하겠고 '노고지리(奴鑄負)'는 학정에 시달린 농부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집을 팔고 노고(奴鑄) (그림 37) 솥을 짊어지고 떠돌다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客死하여 그 원혼이 새가 되었는데 자식들이 자기 처럼 되지 않게 한곳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경교로 아침 일찍 창가에 와서 노고지리! 노고지리! 하고 우짖는다.¹⁶⁾



그림 37 조선조 노구(奴鑄) 솥(지름: 26 cm)

15 : 消災吉祥佛經寶鑑, p 115.

16 : 東俗禽言十警 第七, 노귀지리(奴 負) , 年代未詳 筆寫本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바 우리의 부엌 문화는 그 원류가 음침하고 비위생적이며 가난에 찌들 우 미신 덩어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건강과 화목과 수명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학문의 성취, 부귀, 재앙의 소멸등을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지혜로운 행복의 산실이었음이 부적을 통해 밝혀졌고 나아가 나라의 국운을 융성케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맛있고 보기 좋은 음식'이라는 차원을 넘어 음식을 만드는 技보다 福運과 德性을 길러내는 '요리의 道'를 실현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천년 전역사를 통해서 국운이 융성할때와 쇠잔할때의 기복을 보이면서도 한결같이 일관되어 전해 내려온 우리의 전통 부엌문화이며 대대로 불씨를 이어 받았던 주부의 道場에서 자랑스런 食文化의 主神 '조왕님'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參 考 文 獻

- 金赫濟, 消災吉祥佛經寶鑑, 明文堂 1970.
 金駿煥, 秘密國文佛經, 德興書林 1968.

- 韓國美術全集 同和出版社 1974.
 高麗以前風俗關係資料撮要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 14年
 美術學報 1. 韓國美術研究學會 1985. 12.
 韓國民俗博物館: 民俗寫眞特別展圖錄 1985.
 釋迦世傳因果經 成化二十二年(AD 1486) 朝鮮 成宗朝
 論天文, 年代未詳 筆寫本
 山海經 晉記室參軍郭 傳 吳志伊註 清初, 木板本
 周易, 玄岩社 南曉星譯, 1973.
 シベリアの古代文化 講談社 アレクセイ
 オクラードニユフ著, 1974.
 眞言集, 朝鮮木板本 乾隆 丁酉(AD 1777)
 風水地理, 年代未詳, 筆寫本.
 天機會立 重刊本 上海 校經山房印行
 東俗禽言十警 年代未詳 筆寫本
 符籙紋樣을 中心으로 考察한 韓國의 家具손잡이
 흥대 산미대학원 碩士학위논문 1977. 金 基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 瑞文文庫 071. 1975.
 李丙
 大韓國史 新太陽社刊 1976 重版 p.43 李瑄根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971. 이희승편
 大漢韓辭典 省音社 1971. 張三植
 朝鮮巫俗の研究 赤松智城 秋葉隆 共編 昭和 12年
 大板屋號書店 上, 下卷
 朝鮮の巫 現朝鮮總督府 昭和 7年
 麻衣相法 千頃堂書局印行